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r>금융위원회 | <h1>보도자료</h1>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미래창조 금융<br>• 따뜻한 금융<br>• 튼튼한 금융 |
|  |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7.3.14.(화) 조간 이후 |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7.3.13.(월)                     |
| 책임자  | 금융위 자산운용과장<br>김기환(02-2100-2666)   | 담당자                 | 박보라 사무관<br>(02-2100-2668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<br>김영진(02-3145-6700) |                     | 자산운용총괄팀장<br>정병찬(02-3145-6702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<br>박상철(02-2003-9240) |                     | 이현락 대리<br>(02-2003-9246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<br>이상현(02-3705-5390) |                     | 방정훈 과장<br>(02-3705-5130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제 목 : ISA 가입동향 분석

- '17.3.31 기준, 총가입계좌수 234.6만좌, 가입금액 3.6조원  
 → 재형저축 최고 183.1만좌, 소장펀드 최고 25.4만좌와 비교시 소기 성과
- 평균가입금액은 ('16.3월말) 55만원 → ('17.3.31) 15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
- 전체 가입자 중 서민층\*이 약 160만명으로 약 70% 차지  
 \* 서민형 ISA 가입자 58.2만명+일반형 ISA 가입자 중 서민형 전환 대상자 약 100만명

## 1 ISA 도입 배경 및 기본 설계

- 일반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 : Individual Savings Account) 도입('16.3.14)

### #1. 투자방식 → 신탁형 ISA & 일임형 ISA

- ① (신탁형 ISA : 투자자 자기주도형)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기주도형 투자자를 위한 상품  
 → 투자성과는 '투자자'의 운용능력에 의해 결정
- ② (일임형 ISA : 금융회사 운용형) 금융회사의 전문인력이 투자자 차금을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,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  
 → 투자성과는 '금융회사'의 운용능력에 의해 좌우

### #2 수수료 부담은 ↓, 세제혜택으로 세후수익률 ↑

- (수수료) 동일 유형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, 금융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비교 공시도 실시('16.5~)  
 \* (예시) A사 : 일반 투자일임상품 보수(1.2%~1.6%) vs. 일임형ISA 보수(0.2%~0.6%)
  - (세제혜택) 순이익(수익-손실)에 대해 "비과세·저율분리과세 혜택"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  
 \* 순이익 200만원(서민형은 250만원)까지는 비과세되며, 200만원(250만원) 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로 분리과세 지원(vs.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 15.4%)
- ISA는 세제 혜택 부여, 수수료 인하 효과로 인해 동일 유형 상품 대비 비용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분명히 혜택이 부여된 상품

### #3. 일임형 ISA 수익률 공시 + 계좌이전제 → 투자자 선택권 제고 +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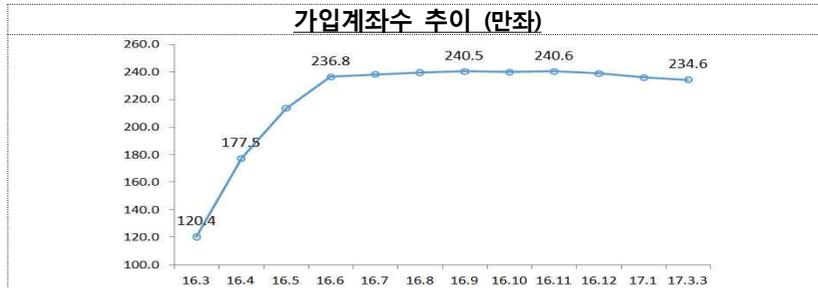
-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신탁형 ISA와 달리, 일임형 ISA는 투자성과가 "금융회사의 운용능력"에 달려 있음
- 투자자가 운용능력이 뛰어난 금융회사를 선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임형 ISA 제도 설계의 핵심
- ① (수익률 공시)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사이트를 통해 수익률을 비교·공시('16.6~)
  -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"가상의 대표투자자"를 가정하여 동일한 조건\* 하에서 수익률을 산출하여 공시
  - \* (조건) MP 출시 시점의 자산가치를 1,000(이를, 'MP기준가'라고 함)이라고 가정하고 MP 설정 및 변경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가를 산정 → 가상의 수익률이므로 개별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과는 상이
- ② (계좌이전제)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,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, 추가 비용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계좌이전제 시행('16.7~)
  -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회사가 이미 가입한 고객의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유인 제공

## 2 최근 ISA 동향

- ◆ '17.3.3일 기준, 가입계좌수 234.6만좌, 가입금액 3조 6,461억원
- '16.12월 이후, 가입계좌수가 감소하였으나, 전체 가입계좌 중 10만원 이하 계좌수·비중이 감소하는 등 ISA가 내실화
- ◆ 신탁형 ISA가 전체 가입계좌수의 88.6%, 가입금액의 85.3% 차지
- ◆ 서민층\*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70% 수준
- \* 서민형 ISA 가입자 + 일반형 ISA 가입자 중 서민형 전환 대상자

### 가. 가입계좌수

- (가입계좌수 추이) '17.3.3일 현재, 234만 6,264좌 기록
- '16.3.14일 출시 후, 4개월 동안 가입계좌수가 급증하여 (6월말) 236만 7,708좌 → (11월말) 240만 5,863좌로 최고점 기록
- 재형저축이 최고 183.1만좌, 소득공제장기펀드(소장펀드)가 최고 25.4만좌를 기록한 것과 비교시, 높은 판매규모 기록
- '16.12월 이후부터 '17.3.3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약 6만좌 감소



※ 출시 초기 판매가 집중되는 현상은 소장펀드, 재형저축 등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며, ISA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

<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계좌추이 (단위 : 만좌) >

| 구분    | 2개월차   | 4개월차              | 6개월차             | 8개월차             | 10개월차            | 11개월차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재형저축* | 172.9만 | 183.1<br>(↑5.9%)  | 182.6<br>(↓0.3%) | 180.0<br>(↓1.4%) | 177.3<br>(↓1.5%) | 175.2<br>(↓1.2%) |
| 소장펀드  | 21.3만  | 25.4<br>(↑19.2%)  | 23.6<br>(↓7.1%)  | 23.7<br>(↑0.4%)  | 23.6<br>(↓0.4%)  | 23.3<br>(↓1.3%)  |
| ISA   | 177.5만 | 236.8<br>(↑33.4%) | 239.9<br>(↑1.3%) | 240.3<br>(↑0.2%) | 239.1<br>(↓0.5%) | 236.2<br>(↓1.2%) |

\* 은행권 재형저축 기준, 증감율은 전 기간 대비 증가비율

- (잔고별 현황) 1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는 가입증가세가 완화된 '16.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
- ISA 출시 초기('16.3월말), 10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90.7%에 달하였으나, (6월말) 81.6% → ('17.1월말) 73.2%로 17.5%p 감소
- 1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('16.3월말) 76.9% → (6월말) 57.7% → ('17.1월말) 52.2%로 24.7%p 감소
- 전체 가입계좌수가 약 236만좌로 유사한 '16.6월말과 '17.1월을 비교하면, 10만원 이하 계좌는 20.6만좌 감소(비중 △8.4%p)한 반면, 10만원 초과 계좌는 20.1만좌 증가(비중 +8.5%p)
- ➔ ISA 가입계좌의 구성 측면에서 소액계좌가 감소('16.6월말 이후 계좌수·비중 모두 감소)는 등 ISA가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특히, '16.12월~'17.1월중 2개월간 가입계좌수는 약 4.4만좌 감소('16.12월중 △1.5만좌, '17.1월중 △2.7만좌)하였으며, 동 기간 중 10만원 이하 계좌는 약 6.1만좌가 순감('16.12월 중 △2.1만좌, '17.1월중 △4만좌)
- ➔ '16.12월 이후 가입계좌수의 감소는 10만원 이하 계좌의 해지 등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< ISA 가입자의 잔고 분포 변화 (단위 : 만좌, %, %p) >

| 구분               | 16.3월말         | 6월말             | 9월말             | 11월말            | 12월말            | '17.1월말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만원 이하           | 92.5<br>(76.9) | 136.7<br>(57.7) | 131.0<br>(54.5) | 126.1<br>(52.4) | 124.5<br>(52.1) | 123.2<br>(52.2) |
| 1만원초과 ~ 10만원 이하  | 16.7<br>(13.8) | 56.6<br>(23.9)  | 51.2<br>(21.3)  | 52.7<br>(21.9)  | 52.2<br>(21.9)  | 49.5<br>(21.0)  |
| 10만원초과 ~ 1천만원 이하 | 9.1<br>(7.5)   | 35.8<br>(15.1)  | 47.6<br>(19.8)  | 49.5<br>(20.6)  | 49.7<br>(20.8)  | 50.6<br>(21.4)  |
| 1천만원초과           | 2.1<br>(1.7)   | 7.6<br>(3.2)    | 10.7<br>(4.4)   | 12.3<br>(5.1)   | 12.6<br>(5.3)   | 12.9<br>(5.4)   |
| 합계               | 120.3          | 236.8           | 240.5           | 240.6           | 239.1           | 236.2           |

□ (신규가입·해지) 신규가입은 고객 선점 효과를 달성한 금융회사의 KPI 조정 등의 영향으로 '16.7월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며,

○ 해지의 경우, '16.7월부터 매월 전체 가입계좌(약 230만좌)의 약 1.5% 수준(월 3~4만좌)에서 큰 변동 없이 해지가 발생하고 있음

< 월별 가입계좌수 추이 (단위 : 만좌, %) >

| 구분 | 16.3월 | 4월   | 5월   | 6월   | 7월  | 8월  | 9월  | 10월   | 11월 | 12월   | 17.1월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신규 | 121.0 | 58.3 | 37.9 | 25.8 | 5.7 | 4.7 | 3.3 | 3.2   | 3.3 | 1.9   | 1.4   |
| 해지 | 0.5   | 1.2  | 1.6  | 2.8  | 3.9 | 3.2 | 2.7 | 3.5   | 3.0 | 3.4   | 4.3   |
| 순증 | 120.4 | 57.1 | 36.3 | 22.9 | 1.7 | 1.4 | 0.6 | (0.3) | 1.5 | (1.5) | (2.9) |

\* '17.2.6~'17.3.3일(4주)간 신규가입 1.5만좌, 해지 2.8만좌로 △1.3만좌 순감 추정(잠정)

## 나. 가입금액

□ (총가입금액) '17.3.3일 현재, 총가입금액은 3조 6,461억원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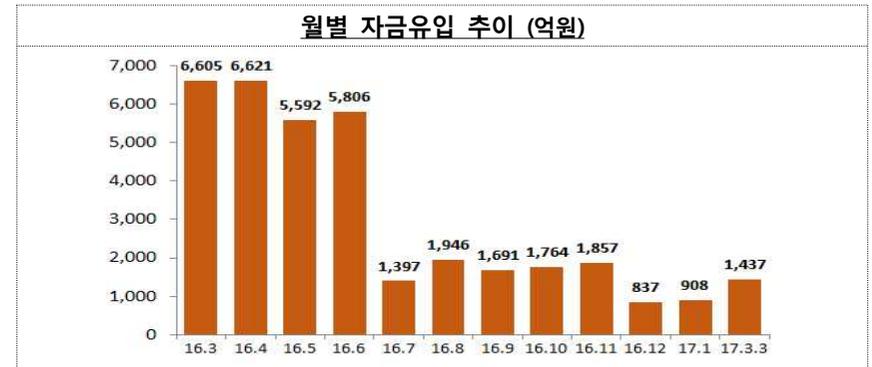
○ ('16.3월말) 6,605억원 기록 후, (6월말) 2조 4,626억원 → (9월말) 2조 9,659억원 → ('17.3.3일) 3조 6,461억원으로 약 5.5배 증가

○ '16.12월 이후 가입계좌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, 총가입금액은 신규가입, 기존 계좌의 추가납입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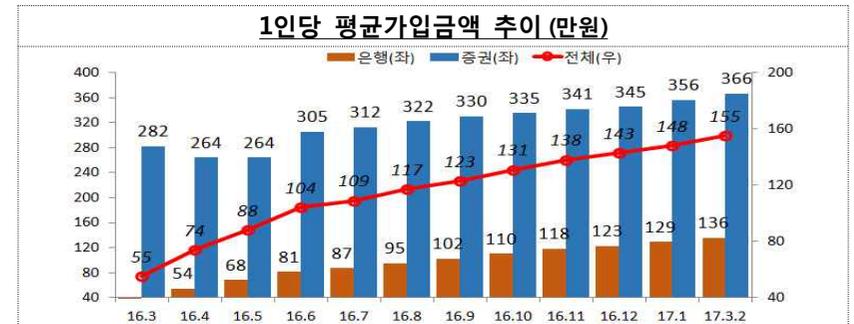
□ (월별 자금유입 추이) 출시 초기에는 매월 5,000~6,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(가입금액 순증)되어 오다,

○ 금융회사 KPI 조정 등 시장 선점경쟁 완화의 영향으로 '16.7월 이후 다소 감소하여 매월 1,000~2,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



□ (1인당 평균가입금액) '17.3.3일 현재,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155만원

○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('16.3월말) 55만원에서 (6월말) 104만원 → (9월말) 12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('17.3.3일) 155만원으로 3월말 대비 약 2.8배 증가



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장펀드와 비교시, ISA는 계좌수 10배, 가입금액 16배, 평균가입금액 1.6배

< 소장펀드와 ISA 비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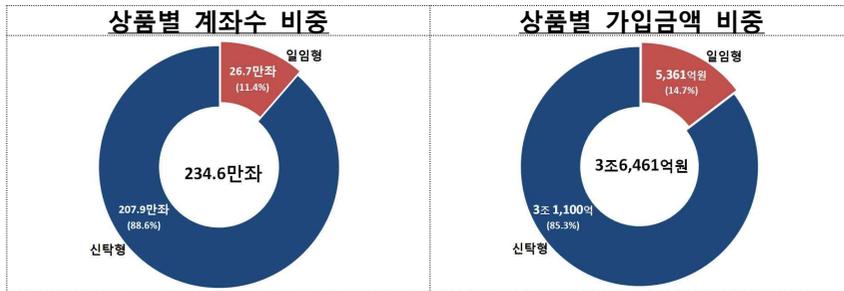
| 구분     | 소장펀드*  | ISA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 |        | 총판매       | (비교)  | 서민형 기준** | (비교) |
| 계좌수    | 23.3만좌 | 236.2만좌   | 10배   | 57.5만좌   | 2.5배 |
| 총잔고    | 2,189억 | 3조 5,024억 | 16배   | 7,772억   | 3.6배 |
| 평균가입금액 | 94만원   | 148만원     | 1.57배 | 135만원    | 1.4배 |

\* '14.3.17(상품출시)부터 '15.1월말까지의 판매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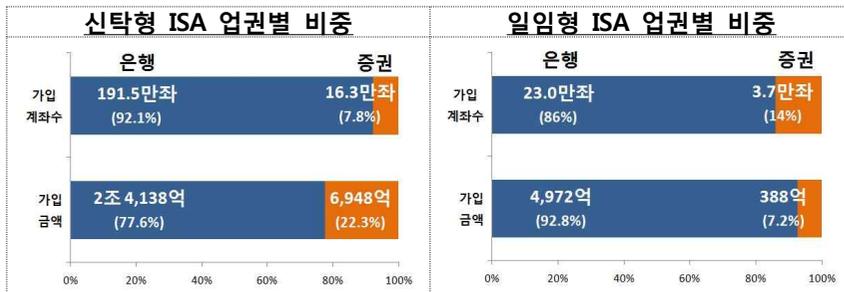
\*\* 소장펀드의 동일 비교를 위해 총급여 5천만원 미만의 자료 한정('17.1월말 공시 기준)

### 다. 상품별 가입현황

- '17.3.3일, 전체 가입계좌수의 약 88.6%(207.9만좌)가 신탁형 ISA, 약 11.4%(26.7만좌)가 일임형 ISA로 신탁형 ISA 비중이 월등히 높음
  - 가입금액 기준으로, 전체 가입금액의 약 85.3%(3조 1,100억원)가 신탁형 ISA, 약 14.7%(5,361억원)가 일임형 ISA에 투자



- (신탁형) '17.3.3일 현재, 신탁형 ISA 가입계좌(207.9만좌) 중 은행권이 92.1%, 증권업권이 7.8%로 여전히 은행권이 높은 비중 차지
  - 신탁형 ISA 전체 가입금액(3.1조) 중, 은행권 비중 77.6%, 증권업권 22.3%로 가입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권의 비중이 높음
- (일임형) '17.3.3일 현재, 일임형 ISA 가입계좌(26.7만좌) 중 은행권 86%, 증권업권 14%로 신탁형에 비해 증권업권 비중이 다소 높음
  - 한편, 가입금액(5,361억원)은 은행권 92.8%, 증권업권이 7.2%로 은행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



### 라. 상품별 운용 현황

- (신탁형) 은행권 고객들은 ISA에 주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편입하고 있으며, 증권사 고객들은 파생결합증권 위주로 투자
  -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편입하는 신탁형 ISA 특성상, 각 업권 고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
- (일임형) 은행권의 일임형 ISA의 편입자산에서 국내채권형펀드가 40%, MMF 26%를 차지하여, 안전자산 위주의 중·저위험 MP 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며,
  - 증권사의 일임형 ISA는 파생결합증권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음

< 업권별 편입자산 현황('17.1월말 기준, 단위 :%) >

| 순위 | 신탁형         |             | 일임형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| 은행          | 증권          | 은행          | 증권          |
| 1  | 예적금 79.7    | 파생결합증권 55.7 | 국내채권형F 41.7 | 파생결합증권 49.7 |
| 2  | 파생결합증권 16.0 | 예적금 21.8    | MMF 26.1    | RP 9.7      |
| 3  | 국내채권형F 1.7  | RP 12.4     | 해외채권형F 7.9  | MMF 7.9     |
| 4  | 국내혼합형F 1.2  | ETF 2.9     | 해외주식형F 7.7  | 국내채권형F 7.2  |
| 5  | ETF 0.3     | 국내혼합형F 1.7  | 국내혼합형F 5.5  | 예적금등 5.7    |

### 마. 일임형 ISA 수익률 현황

- ※ 전체 ISA 가입계좌수의 약 90%인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음
- '17.1월말 현재, 출시 3개월이 경과한 총 25사 201개 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2.08%(최저 △2.4% ~ 최고 11.49%)
  - '16.11월 美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금리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0.5%로 최저점 이후, 2개월 연속 상승세

< 업권별 출시이후 누적수익률 (단위 : %, %P) >

| 구분 | '16.9월말 | 10월말 | 11월말  | 12월말 (A) | '17.1월말(B) |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차이(B-A)    |      |
| 전체 | 1.83    | 1.52 | 0.50  | 1.46     | 2.08       | 0.62 |
| 증권 | 2.17    | 1.91 | 0.91  | 2.07     | 2.69       | 0.62 |
| 은행 | 1.14    | 0.76 | △0.22 | 0.41     | 1.01       | 0.60 |

- ➔ ISA의 상품성은 궁극적으로 가입기간(3~5년)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됨
-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

## 바. 가입자 특성 분석

□ (서민형 가입자) '17.1월말 현재, 서민형 ISA\*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58.2만명으로 집계

\* 총급여 5,000만원 이하, 종합소득 3,500만원 이하

○ 그러나, 국세청 확인 과정에서 서민형 ISA 가입 대상자이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약 100만명\*으로 확인

➔ 이에 따라, 해당 가입자의 서민형 전환시 서민형 ISA 가입자는 약 160만명(ISA 전체 가입자 236.2만명 중 약 70%)으로 확대

\* 서민형 전환시, 비과세한도 200만원 → 250만원으로 확대, 의무가입기간 5년 → 3년으로 축소될 예정

※ 국세청은 ISA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였으며, 해당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민형으로 전환 절차 진행 예정(각 회사는 일괄 전환 후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, 개별 통지후 전환절차를 진행 예정)

< 가입유형별 ISA 가입 추이 (단위 : 만좌, %, %p) >

| 구분   | '16.3월말        | 6월말             | 9월말             | 12월말            | '17.1월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일반형  | 91.9<br>(76.3) | 167.6<br>(70.8) | 168.0<br>(69.9) | 166.2<br>(69.5) | 163.9<br>(69.4) |
| 서민형* | 22.5<br>(18.7) | 55.9<br>(23.6)  | 58.7<br>(24.4)  | 58.7<br>(24.5)  | 58.2<br>(24.6)  |
| 청년형  | 6.0<br>(4.9)   | 13.1<br>(5.5)   | 13.7<br>(5.7)   | 14.1<br>(5.9)   | 14.0<br>(5.9)   |
| 기타   | 0.1<br>(0.0)   | 0.1<br>(0.0)    | 0.1<br>(0.0)    | 0.1<br>(0.0)    | 0.1<br>(0.0)    |
| 총계   | 120.4          | 236.8           | 240.5           | 239.1           | 236.2           |

\*고객이 창구에서 가입한 가입유형 기준

- (연령별) 연령별 가입자 수는 40대 → 30대 → 50대 → 20대 순
  -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60대가 339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, 50대 → 40대 → 20대 → 20대 미만 → 30대 순
  - 30~40대의 경우, 소득 대비 주거비, 교육비 등 지출 규모가 커서 저축 여력이 낮아 평균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

< 연령대별 가입계좌수 및 평균잔고 (단위 : 만좌, %) >

| 구분     | 20대 미만 | 20대    | 30대    | 40대    | 50대    | 60대 이상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가입계좌수  | 0.5    | 30.6   | 64.6   | 70.4   | 51.0   | 19.1   |
| (비중)   | (0.2)  | (12.9) | (27.4) | (29.7) | (21.6) | (8.1)  |
| 평균가입금액 | 89만원   | 102만원  | 81만원   | 133만원  | 211만원  | 339만원  |

## 4 평가 및 향후 계획

- ISA는 '16.3.14일 출시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입자수 230만명, 가입금액 약 2.5조원의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,
  - 최근에는 양적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나 ① 소액계좌의 감소, ② 총가입금액의 지속적인 상승, ③ 1인당 평균가입금액 증가 등 ISA 활용도가 제고되는 등 내실화되고 있는 상황
- 전체 ISA의 가입자 중 실제 서민층의 비중이 70%에 이르는 만큼, ISA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  - 일반형 가입자의 중 서민형 가입대상자가 서민형으로 전환시, 세제혜택 확대 및 의무가입 부담 완화 혜택\*을 받게 될 전망
- \* 비과세한도 : 200 → 250만원, 의무가입기간 : 5년 → 3년
- 한편, 전체 ISA 가입계좌 중 신탁형 ISA(투자자 자기주도형)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%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,
  - 전체 가입계좌의 10%에 불과한 일임형 ISA(금융회사 운용형)의 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'부분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'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

- 또한, ISA는 3년 ~ 5년의 장기 투자상품으로,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·운용하는 만큼, 몇개월의 단기 수익률로 ISA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ISA는 세제혜택, 투자자 선택권, 자산관리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임
  - 많은 국민들이 ISA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, ISA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필요
  -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비판으로 ISA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오히려 ISA의 발전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당부드림
- 한편, ISA 가입자수가 240만명 수준 달성 이후 정체되고 있는 만큼, ISA가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
  - 가입대상 확대, 세제혜택 확대,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

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r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<br>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br>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 | 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<br>prfsc@korea.kr |  넓게 들었습니다<br>빠르게 알리겠습니다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